

2021
수특

2021 수능특강 문학 1. 개념학습 3강 황만근은~ 성석제 분석서술형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마흔다섯 살의 황영석은 황만근이 벽돌을 짚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 회관 변소에서 분노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탁할 일이 생겨서야 황만근의 부재를 깨달음.)

“만그이 자석이 있었으나 내가 돈을 백만 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이런 발화를 통해 황만근이 여태껏 힘든 일, 궂은 일을 전부 맡아서 했음을 알 수 있음.) 아이구, 이 망할 놈의 똥 냄새, 우리가 싸 놔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기 곡석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마.”

<황만근이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이 병글병글 웃으면서.(황만근의 성격 ① - 우직하고 긍정적임) / < > 시작 부분에서 에피소드(삽화)를 나열하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연속되는 사건의 선후 관계와는 상관없이 황만근의 됃됨이를 보여 주는 에피소드를 병렬적으로 제시하여 인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줌.)

“만그이가 있었으므로 저 거름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만그이가 도대체 어데 갔노.”

마을 회관 걸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여 씨 노인도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황만근은 마을 공통의 분노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노장으로 가져가서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황만근의 성격 ② - 헌신적, 공평함) 황영석처럼 제가 찢었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가 뿌리지는 않았다. 특히 여 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잣몸이 된 노인들에게는,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더 자주 거름을 가져다주었다.(황만근의 성격 ③ - 약자를 배려함)

▶ 황만근의 봉사 정신을 보여 주는 일화

“만그이한테 물어보자.”

아이들은 소꿉장난을 하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공평무사한 것이 황만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는 듯했지만(황만근의 성격 ④ - 어리숙함) 시비를 물으러 가면, 가노라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종식되었다.(황만근의 성격 ⑤ - 공평무사함) 또는 물어보나 마나 명약관화한 일을 두고도 황만근을 들먹였다.

▶ 황만근의 공평무사함, 어리숙함을 보여 주는 일화

“만그이도 알 낀다.”

또한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사람들은 황만근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만근가,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황만근의 됃됨이를 알 수 있는 과거의 사건들을 보여 줌. 매개체의 기능을 하는 노래) 먼저 “황” 하고 단호하고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쉬 뒤에 “마안 - 그은” 하고 두 박자로 느릿하게 부른다. 이어서 “백 분(번), 짹 원(십 원), 여 끈(열 근), 팔 푼, 두 바리(마리)” 하고 빠르게 센다. 마지막으로 “그래, 바안 - 그은”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에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 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 경험과 정서가 녹아 있다.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 1리는 황씨들이 오십여 호 모여 사는 집성촌이다. 2년 전에 귀농한 민 씨 같은 타성바지는 황씨 집안에 데릴사위로 들어온 노 씨를 포함 전체에서 두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신대(新垔), 새터는 이름이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만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배고 있었는데 남편을 여의고 황만근을 낳은 까닭에 항렬을 따서 이름을 지어 줄

사람이 없어 집에서 우러러보이는 산, 만근산(萬根山)에서 이름을 받았다.》(황만근이라는 이름이 붙여 지게 된 불우한 내력) 만근산은 신대 1리에서 3리까지가 띠 모양으로 둘러 있는 천곡지(千谷池)를 병풍 처럼 에워싸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철 물을 대 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근산의 천곡이라는 이름의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흘러져 사는 사람들을 모아 한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리이다. 「이쯤만 해도 황만근이라는 이름이 곧 동네의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임을 알 수 있다.」(「」: 서술자의 개입 ①) ‘백 분’은 무엇을 이름인가. 황만근이 땅바닥에 넘어진 횡수가 백 번임을 말한다. 황만근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자주 넘어졌는데 동네 사람들 말대로 ‘골’, 곧 자주 아는 척하는 윗마을 황학수의 말마따나 평형 감각을 관장하는 소뇌가 미발달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동네에서 툭, 소리가 나면 홍시 떨어지는 소리, 아니면 황만근이 넘어지는 소리라고 여겼다.(황만근의 모자람을 보여주는 부분 ①) 누군가 황만근에게 도대체 하루에 몇 번 넘어지는지 세어 보라고 했다. 「기왕 넘어지는 거 썸 공부나 하라는 충고였겠다.」(「」: 서술자의 개입 ②) 저녁때 어린 황만근에게 몇 번 넘어졌는가 물으면 황만근은 손가락을 꼽고 발가락을 꼬고 무릎과 허리까지 배배 꺾 가며 용을 썼다. 그런데 황만근은 언제부터인가 그런 물음에 명쾌하게 ‘백 분’이라고 대답했다. 하루에 백 번, 한 달에 백 번, 일 년에 백 번, 평생 백 번. 백은 황만근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단위였다.(황만근의 모자람을 보여주는 부분 ②)

‘찝 원’은 면사무소가 있는 봉대 장터의 국수 가게 주인이 보태 준 별명이다. 어느 날 열서너 살 난 더벅머리 황만근이 국수를 사러 와서는 가게 문간에서 이렇게 말했다. “꼭짜 찝 원어찌만 쪼요.”(황수건의 모자람을 보여주는 어눌한 말투) 국수 장수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다. 황만근은 신중하게 손가락을 헤아리더니 다시 ‘꼭짜’라고 하면서 가게 주변이 온통 환하도록 널려 마르고 있는 국수 가닥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찝 원’이라고 했는데 주인은 그 말을 그의 손에 들린 십 원짜리 지폐를 보고 겨우 알아들었다. 어린 시절 황만근은 혀가 짧았던 것이다.(황만근의 모자람을 보여주는 부분 ③)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핵심 정리

- 갈래 : 단편소설, 농촌소설,
- 배경 : 시간적 - 1997년 어느 봄날, 공간적 - 농촌(신대1리 새말터)
- 시점 : 전지적 작가 시점
- 성격 : 해학적, 사실적
- 주제 :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인간의 본보기
- 인물
 - 황만근 : 유복자로 태어나 바보라는 놀림을 받지만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농민
 - 민순정 : 도시에서 이농하여 실패하고 다시 되돌아가지만 황만근의 인간됨을 아는 유일한 사람
 - 이장, 황재성, 황동수, 황규수, 황영석, 여씨 노인, 황학수 등 : 새말터의 농민으로 황만근을 바보라 놀리면서도 부러워했던 사람들
- 전체구성
 - 발단 : 황만근이 사라진 사건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
 - 전개 : 황만근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마을에서의 존재 가치
 - 위기 : 전국 농민 총궐기대회에 참석하는 황만근
 - 절정. 결말 : 주검으로 돌아오는 황만근과 그 주검 앞에 조사를 바치는 민순정

▣ 전체 줄거리

황만근이 실종된 것을 안 마을 사람들과 민 씨는 황만근의 집에 모이게 된다. 하지만 진정으로 황만근

을 걱정하는 사람은 민 씨뿐, 다른 마을 사람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황만근은 어렸을 때부터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우스꽝스러워서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지만, 그에 비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을의 굶은일을 도맡아 하는 성실하고 우직한 인물이다. 그런 황만근에게 이장은 농민 총궐기 대회 전날,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것을 지시하고, 이장의 말을 듣고 황만근은 밤에 경운기를 타고 군청으로 향한다. 황만근은 궐기 대회에 참가하지도 못하고 마을로 돌아오던 길에 차와 부딪쳐 사고가 나고, 결국 동사(凍死)하게 된다. 민 씨는 황만근의 됴됨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묘지명을 쓰고 서울로 돌아간다.

■ 이해와 감상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동서문학> 2000년 겨울 호에 발표된 성석제의 단편소설로 농촌 마을에서 반푼이로 취급받는 가난하고 어리석은 농부 '황만근'의 일대기를 약간의 과장과 골계를 섞어 재미있으면서도 슬프게 그려낸 작품으로, 각종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과 메말라가는 인정을 통해 삶의 어두움을 그리고 있다.

흔히 성석제를 일컬어 '거짓과 참, 상상과 실제, 농담과 진담, 과거와 현재 사이의 경계선을 미묘하게 넘나드는 개성적인 이야기꾼' 혹은 '현실의 온갖 고통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을 오히려 성찰하면서 그것을 웃으며 즐길 줄 아는 작가'라 평한다. 또한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이고 농담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막힘없이 풀어놓으며 마치 무협지의 고수들처럼 과거와 현재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입담을 펼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런 평가들처럼 성석제는 미묘한 경계선을 거닐면서 재미난 입담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작가이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남의 비웃음과 모멸을 거리끼지 않고 평생 자신의 일을 다 하며 이웃을 돌보다 갑작스런 사고사를 당한 황만근의 일생이, 그의 진면목을 알아본 한 외지인의 기림 속에 온전히 살아나면서,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그의 행적을 되새기게 한다.

농민 궐기대회를 앞두고 모두가 '투쟁하러가자~~'고 해놓고 정작 당일에는 귀찮아서 가지 않거나, 트럭이나 버스를 타고 갔다가 행하니 와버렸지만, 이장이 지시한 대로 혼자 묵묵히 경운기 끌고 터덜터덜 갔다가 사고로 죽은 황만근이다.

형식적인 궐기대회이기에 농민들은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삼삼오오 버스나 트럭으로 갔다가 몇 마디 구호를 외치고 와 버리지만, 황만근만은 농민회의 요구대로 경운기를 끌고 갔다. 그러니 늦을 수밖에 없고, 대회에는 참석도 못하고 만다. 덜덜거리는 경운기는 밤길을 달리다 끝내 논두렁에 박히고 경운기를 지키며 밤을 새우지만 경운기는 황만근을 지켜주지 못하고 동사하게 만든다.

농민회의 요구대로, 이장의 지시대로 경운기를 끌고 갔던 황만근이 옳은가, 아니면 트럭이나 택시를 타고 행하니 달려가 구호 몇 마디 외치고 돌아와버린 다른 농민들이 옳은가. 과연 어떠한 행동이 바른 자세인가. 사실 후자가 결코 바른 자세일 수는 없지만 세태가 모두 그렇다. 그러니 그렇지 않은 황만근이 '바보'가 되고 뒤쳐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이 소설은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현대 사회에서 농민들이 처한 상황의 문제, 즉 배경 이야기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좋다는 농촌에서조차 사라지고 있는 인심 혹은 인간의 정에 대한 문제이다. 즉 이기주의로 가득찬 사회의 문제를 바보라 일컬어지는 순진무구한 황만근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 하자면 '황만근은 이렇게 살았다'가 된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제목에서 암시하는 '이렇게'는 무엇인가? 사실, 그는 소설 속 내용 중 어디에서도 특별한 메시지를 남기지 않는다.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된다카이"가 그나마 제대로 된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그는 말을 남긴 것이 아니다. 즉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에 해당하는 부분을 몸으로 보여주며 살다 간 인물이다. 그 때문에 말없이 도리를 다한 생애는 욕망과 이기심으로 뭉친 삶을 되비추는 독특한 거울이 되는 것이다.